

제5장

근로빈곤의 동태적 분석

김혜련

제1절 서론

1. 연구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보의 격차,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은 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뒤 2000년에 감소하였으나 2004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도 이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보화 및 세계화 등으로 인한 정보의 격차(digital divide)로 발생한 임금 및 소득의 격차 증가와 저학력, 비숙련노동자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실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발생한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인해 소득분배 현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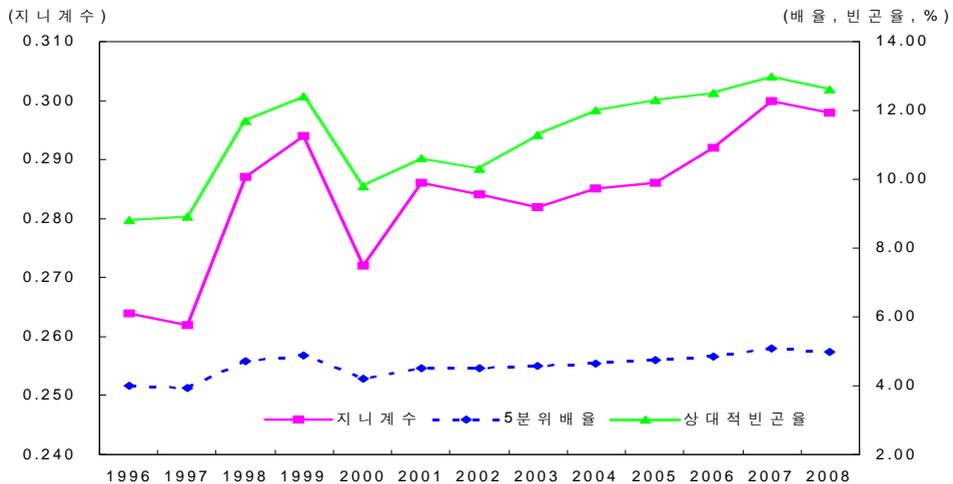
최근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노동유연화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빈곤개념인 일을 하면서도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취업빈곤(working poverty)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빈곤층은 실업자, 연금수령자 및 아동 등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non-working people)로 간주되어 왔지만 최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새로운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TIC)¹⁾를 실시하여 취업빈곤층에 대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화하고 있다.

1)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하며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2009년 5월부터 처음 시행하였으며 미국,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취업빈곤에 대한 현황 파악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확대된 개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추진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정책과 근로능력자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등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동일한 개인이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이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빈곤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빈곤의 횡단면적 현황 파악과 더불어 빈곤진입과 탈출에 대한 동태적 파악을 통해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 시행 및 관련 노동 정책의 실시가 요구된다. 즉, 가구(또는 개인)의 빈곤 진입률 및 탈출률, 빈곤지속기간, 진입 및 탈출 결정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빈곤가구에 대한 행태 파악 및 관련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노동과 빈곤에 대한 관련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합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두 조사의 결합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원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결합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검증 등 정확한 구조 및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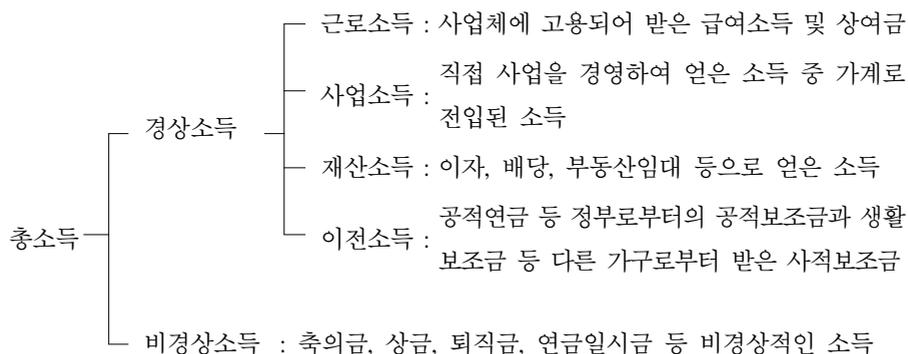
[그림 5-1]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소득분배 및 빈곤율 추이

2. 기본 개념

빈곤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의 기회, 수단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로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원의 부족 즉,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빈곤은 크게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 빈곤분석에서는 그 사회의 평균소득 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²⁾ 따라서 본 분석에서도 OECD의 상대적 빈곤개념을 이용하여 전체가구에 대한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의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분류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경상소득은 퇴직금, 경조비 등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소득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외국 및 국제비교 분석에서는 시장소득(market income)과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 주로 이용된다.³⁾ 가처분소득은 실제로 가계가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시장소득에 정부의 공적이전을 포함하고 조세 등 공적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 소득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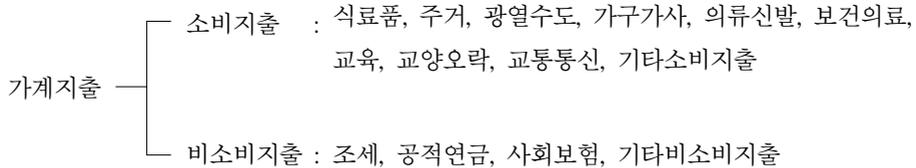


2) 절대적 빈곤의 정의는 단지 신체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minimum necessities of merely physical efficiency)을 사는 데 필요한 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층으로 정의한 Rowntree 방식, 최저한의 식품비 $\times(1/\text{엔겔계수}(=\text{식품지출비}/\text{총소득}))$ 로 정의되는 Orshansky 방식 및 하루에 \$1 또는 \$2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world bank 방식으로 크게 분류됨

3) 「가계조사」를 이용한 시장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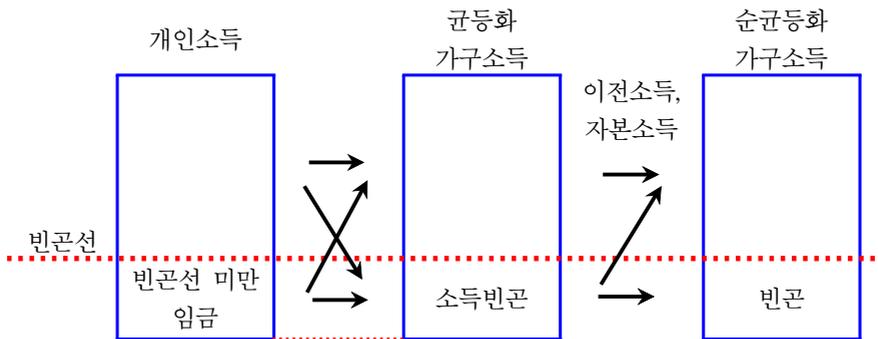


◆ 지출의 분류(구분류)



또한 불평등 및 빈곤 분석에 사용되는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수준 및 경제후생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OECD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 중 하나인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사용하여 나누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과 균등화소득을 사용하여 분석한다.⁴⁾

근로빈곤은 소득과 고용적 측면을 혼합한 개인 및 가구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적 개념(hybrid concept)이다. 왜냐하면 소득(빈곤)은 가구단위에서 측정되어지고 고용(근로)은 개인단위에서 측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취업자가 빈곤상태라고 정의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이다.⁵⁾ 첫째, 취업자의 소득이 빈곤선 미만(poverty wage)이고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의 다른 소득에 의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로, 주된 이유는 취업자 자신의 저소득(low income) 때문이다. 둘째, 취업자의 소득이 빈곤선 미만은 아니지만 가구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경우이다.



출처: W. Strengmann Kuhn(2002), "Working Poor in Europe: A Partial Basis Income for Worker?"

[그림 5-2] 근로빈곤층의 소득분배과정

4) $\text{균등화소득} = \frac{\text{가처분소득}}{\sqrt{\text{가구원수}}}$

5) W. Strengmann Kuhn(2002), Working Poor in Europe: A Partial Basis Income for Worker?, p. 5~6

근로빈곤은 연구목적에 따라 포괄범위가 달라지는데, 근로능력 유무와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정의를 나눌 수가 있다.⁶⁾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기준은 가구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workable poor)으로 정의된다. 근로능력자의 정의는 다음의 근로무능력자(및 근로불가능자)를 제외한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된다.⁷⁾ 취업상태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기준은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중 취업상태에 있는 구성원(working poor)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확대된 개념인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으로 정의한다.

※ 근로 무능력자 및 근로 불가능자

- 연령이 65세 이상인 비경제활동인구
- 주요 활동상태가 심신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 주요 활동상태가 학교 재학 및 군입대 대기인 비경제활동인구

〈표 5-1〉 근로빈곤층의 범위

근로능력 상태	노동력 상태		빈곤	비빈곤
근로능력	경활	취업자	취업빈곤층	취업비빈곤층
		실업자	실업빈곤층	실업비빈곤층
	비경활	근로능력 비경활층	근로능력 비경활 빈곤층	근로능력 비경활 비빈곤층
근로무능력	연령65세이상 심신장애자 재학 및 군입대 대기		근로무능력 비경활 빈곤층	근로무능력 비경활 비빈곤층

주) 음영부분이 근로빈곤층

6) 상세한 것은 노대명 및 최승아(2004)의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참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한 근로무능력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임산부, 공익 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정의



제2절 자료 구축 방법

1.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합자료 생성

2006년~2009년 2/4분기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월별자료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자료를 가구식별번호(ID)를 이용하여 개인별 소득과 고용정보를 결합한다.⁸⁾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전체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상세정보와 가구원의 성, 교육정도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 및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소득정보(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가 제공된다. 하지만, 기타가구원의 소득은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가구원별 소득을 분리할 수 없다. 결합방법은 가구식별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및 취업여부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인의 고용정보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 소득정보와 결합한다. 왜냐하면, 두 조사의 시점차이 등에 의해 가구주와의 관계 및 구성 가구원 정보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개인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결합할 필요가 있다.⁹⁾

〈표 5-2〉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시점

구분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대상기간	매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조사실시기간	매월28~말일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

〈표 5-3〉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의 Layout

가구번호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가구원 개인 소득						가구전체 소득 및 지출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1	...	가구원6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소득세부항목	지출세부항목		
	성, 연령, 학력 등	성, 연령, 학력 등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등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세부항목	지출세부항목
1													...
2													...
:													

8) 연령의 경우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해 ±1살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여 결합하였음

9) 결합방법은 가구원 개인별 소득을 결합하지 않고 가구소득만을 결합하는 방법도 있음. 이 방법 적용시 포본탈락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별 고용상태와 소득과의 관계는 파악할수 없음

〈표 5-4〉 경제활동조사 원자료의 Layout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	생년월일	고용정보	...
1	1					...
1	2					...
2	1					
3	1					
:						

개별 가구원 소득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로 응답하고 「가계동향조사」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로 응답하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값을 부여한다. 제외되는 경우는 임금근로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및 소득이 0인 경우, 비임금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무직이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의 기타가구원 소득의 경우 소득이 있는 가구주 및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것이므로 소득이 있는 기타 가구원이 1명인 경우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였다.

2. 패널자료 생성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5년마다 표본을 개편하므로 5년간 동일 가구 및 개인별로 패널자료 생성이 가능하다. 두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개편이 되며 1982년 이후 6번의 표본개편이 있었다. 하지만, 2005년 연동표본의 도입으로 인해 동일가구 및 개인의 패널구축기간은 3년으로 짧아졌다.

〈표 5-5〉 표본개편 및 주요 내용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동일표본 사용 기간	주요 변경 내용
1980년	1982~1987년	▪ 1982년 소비지출을 5대 비목에서 9대 비목으로 세분하여 조사
1985년	1988~1992년	
1990년	1993~1997년	▪ 1995년부터 소비지출을 10대 비목으로 확대
1995년	1998~2002년	
2000년	2003~2007년	▪ 2005년부터 연동표본제 도입 ▪ 2006년부터 1인가구 조사 시작
2005년	2008년~현재	▪ 2009년부터 소비지출의 항목분류를 COICOP에 기반을 둔 12대 분류체계로 개편



기간별 동태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06~2007년 및 2008~2009년의 두 기간의 2/4분기 기준 연결 패널자료를 생성하였다. 동일한 개인에 대한 2/4분기 결합자료의 가구식별번호, 가구원 성,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형성하였다. 분석목적에 따라 자료 생성 기준이 매월, 매분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 월기준 결합 자료는 월소득의 변동성 등이 커 본 연구에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연결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¹⁰⁾ 소득 및 지출 등 가계수지는 분기평균자료를, 가구원수, 취업자수 등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 변수는 2/4분기의 마지막 조사된 자료를 대표치로 사용하였다. 또한 빈곤 진입 및 탈출 결정 요인, 빈곤 지속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03~2007년 5개년의 패널자료를 생성하였는데, 동기간 동안 매년 2/4분기에 모두 조사된 개인만을 선택하였다(balanced panel).

3. 자료의 한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료구축 과정에서 표본의 탈락이 많고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의 빈곤 현황을 나타내지 못한다. 원자료에 대한 연결자료의 결합률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기준 평균 88.9%,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인 기준 18.3%이다. 또한 2006~2007년 및 2008~2009년 두 기간 간 구축된 패널자료의 경우 연결자료의 시작시점(2006년, 2008년) 기준 각각 48.0%, 50.9%으로 탈락률이 매우 높았다. 2003~2007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표본은 2003년 기준 1.1%로 매우 낮다.

제3절 결합자료의 기초 통계량 비교

1. 표본수 비교

연결자료의 2003년~2009년 상반기까지의 월평균 개인수는 12,98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평균 70,408명의 18.3%에 해당된다. 월평균 가구수는 6,577가구로 동기간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7,349가구의 88.9%에 해당된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하위표본이지만 2005년부터 도입된 연동표본(rotating sample)의 대체 시점 상이 등으로 인해 「가계동향조사」의 모든 표본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과 100% 결합되지 못한다. 결합률은 개인기준 2003년 18.6%에서 2007년 18.0%, 2008년 17.9%에서 2009년 상반기 16.7%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구의 전출 등으로 인한 두 조사의 표본수 감소에 기인한다.

10) 가중치도 해당분기의 평균치를 선택. 2분기의 마지막 월(6월) 자료가 없는 가구의 경우는 해당분의 마지막 존재하는 월을 해당분기의 대표치로 선정

〈표 5-6〉 표본수 비교

(단위 : 명, 가구, %)

연도	경찰조사 원자료		가계조사 원자료	월별 결합 자료			
	개인	가구	가구	개인		가구	
2003년	73,578	32,009	7,464	13,653	(18.6)	6,717	(90.0)
2004년	71,974	31,622	7,366	13,846	(19.2)	6,772	(91.9)
2005년	71,291	31,573	7,309	13,180	(18.5)	6,418	(87.8)
2006년	70,970	31,656	7,558	13,242	(18.7)	6,717	(89.1)
2007년	68,812	31,223	7,194	12,422	(18.0)	6,309	(87.7)
2008년	66,991	30,492	7,076	11,981	(17.9)	6,045	(85.4)
2009년 상반기	69,241	30,888	7,046	11,535	(16.7)	6,263	(88.9)
평균	70,408	31,550	7,349	12,980	(18.3)	6,577	(88.9)

주) 괄호 안은 원자료대비 결합자료의 비중

동태적 분석을 위해 구축된 2006~2007년과 2008~2009년 두 기간의 패널자료 결합률은 각각 평균 48.0%, 50.9%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로 구성된 2003~2007년 5년간 지속된 자료는 715명으로 2003년 1/4분기 결합자료 기준 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5-7〉 패널자료의 결합률

(단위 : 명, %)

	1인 이상		2인 이상	
	2006~2007년	2008~2009년	2003~2007년	
표본수	6,900 (48.0)	6,381 (50.9)	715 (1.1)	

주) 괄호 안은 각 패널기간의 시작년도의 2/4분기 결합자료(2003년 15,988명, 2006년 14,370명, 2008년 12,527명)에 대한 패널자료의 비중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고용현황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결합자료는 여성, 15~19세, 30세 이상의 연령대 및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다. 여성의 경우 2006년~2009년 상반기 평균 51.9%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 51.2%보다 0.7%p 높다. 15~19세 인구 및 30세 이상 인구는 2006년~2009년 상반기 평균 각각 9.4%, 80.0%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 75.0%보다 5.0%p 높다.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인구는 기간 평균 74.3%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71.6%보다 2.7%p 높다.



결합자료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6년~2008년 3개년 평균 42.1%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 38.5%보다 3.5%p 높다. 특히 실업자의 비중은 평균 0.7%로 원자료의 2.1%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평균 23.3%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 22.3%보다 1.0%p 높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평균 10.6%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 11.2%보다 0.6%p 낮다.

〈표 5-8〉 개인특성별 비교

개인 특성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15세 이상 인구(명)	38,762 (100.0)	13,242 (100.0)	39,170 (100.0)	12,422 (100.0)	39,597 (100.0)	11,981 (100.0)	39,964 (100.0)	11,535 (100.0)	
성(명)	남자	18,863 (48.7)	6,188 (46.7)	19,084 (48.7)	5,822 (46.9)	19,324 (48.8)	5,628 (47.0)	19,532 (48.9)	5,984 (51.9)
	여자	19,899 (51.3)	7,054 (53.3)	20,086 (51.3)	6,600 (53.1)	20,273 (51.2)	6,353 (53.0)	20,432 (51.1)	5,551 (48.1)
연령(명)	15~19세	3,102 (8.0)	1,203 (9.1)	3,202 (8.2)	1,121 (9.0)	3,238 (8.2)	1,102 (9.2)	3,268 (8.2)	1,174 (10.2)
	20~29세	6,741 (17.4)	1,455 (11.0)	6,653 (17.0)	1,328 (10.7)	6,584 (16.6)	1,249 (10.4)	6,533 (16.3)	1,210 (10.5)
	30~39세	8,382 (21.6)	3,034 (22.9)	8,282 (21.1)	2,817 (22.7)	8,248 (20.8)	2,642 (22.1)	8,207 (20.5)	2,377 (20.6)
	40~49세	8,246 (21.3)	3,264 (24.6)	8,282 (21.1)	3,020 (24.3)	8,353 (21.1)	2,811 (23.5)	8,395 (21.0)	2,466 (21.4)
	50~59세	5,595 (14.4)	1,946 (14.7)	5,873 (15.0)	1,846 (14.9)	6,091 (15.4)	1,843 (15.4)	6,302 (15.8)	1,873 (16.2)
	60세 이상	6,696 (17.3)	2,341 (17.7)	6,878 (17.6)	2,290 (18.4)	7,084 (17.9)	2,332 (19.5)	7,258 (18.2)	2,435 (21.1)
교육(명)	초졸 이하	6,883 (17.8)	2,424 (18.3)	6,763 (17.3)	2,229 (17.9)	6,650 (16.8)	2,140 (17.9)	6,511 (16.3)	2,062 (17.9)
	중졸	5,955 (15.4)	2,304 (17.4)	5,947 (15.2)	2,091 (16.8)	5,919 (14.9)	2,009 (16.8)	5,920 (14.8)	2,025 (17.6)
	고졸	15,587 (40.2)	5,323 (40.2)	15,594 (39.8)	4,965 (40.0)	15,503 (39.2)	4,667 (39.0)	15,576 (39.0)	4,344 (37.7)
	전문대졸	3,184 (8.2)	1,018 (7.7)	3,403 (8.7)	1,003 (8.1)	3,607 (9.1)	1,049 (8.8)	3,752 (9.4)	987 (8.6)
	대졸	6,344 (16.4)	1,956 (14.8)	6,631 (16.9)	1,924 (15.5)	6,932 (17.5)	1,844 (15.4)	7,161 (17.9)	1,836 (15.9)

〈표 5-8〉 개인특성별 비교 (계속)

개인 특성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교육(명) 대학원 이상	809 (2.1)	218 (1.6)	832 (2.1)	210 (1.7)	987 (2.5)	273 (2.3)	1,045 (2.6)	281 (2.4)
고용 현황 (명)								
취업자	23,978 (61.9)	7,762 (58.6)	24,216 (61.8)	7,391 (59.5)	24,346 (61.5)	7,039 (58.8)	23,321 (58.4)	6,231 (54.0)
상용직	8,204 (21.2)	2,962 (22.4)	8,620 (22.0)	2,894 (23.3)	9,007 (22.7)	2,903 (24.2)	9,225 (23.1)	2,688 (23.3)
임시직	5,143 (13.3)	1,638 (12.4)	5,172 (13.2)	1,583 (12.7)	5,079 (12.8)	1,485 (12.4)	5,032 (12.6)	1,139 (9.9)
일용직	2,204 (5.7)	770 (5.8)	2,178 (5.6)	700 (5.6)	2,121 (5.4)	627 (5.2)	2,018 (5.1)	497 (4.3)
고용주	1,632 (4.2)	541 (4.1)	1,562 (4.0)	491 (4.0)	1,527 (3.9)	420 (3.5)	1,499 (3.8)	439 (3.8)
자영업자	4,502 (11.6)	1,398 (10.6)	4,487 (11.5)	1,319 (10.6)	4,443 (11.2)	1,248 (10.4)	4,204 (10.5)	1,238 (10.7)
무급가족 종사자	1,466 (3.8)	348 (2.6)	1,413 (3.6)	315 (2.5)	1,401 (3.5)	276 (2.3)	1,342 (3.4)	231 (2.0)
실업자	827 (2.1)	107 (0.8)	783 (2.0)	90 (0.7)	769 (1.9)	80 (0.7)	926 (2.3)	92 (0.8)
비경활 인구	14,784 (38.1)	5,480 (41.4)	14,954 (38.2)	5,031 (40.5)	15,251 (38.5)	4,942 (41.2)	15,718 (39.3)	5,212 (45.2)

3.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 비교

결합자료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2006~2008년 평균 가계소득은 2,967천 원으로 원자료 2,868천 원보다 99천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합자료의 근로소득의 경우 3개년 평균 1,867천 원으로 원자료 1,788천 원보다 79천 원 많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다. 결합자료의 가계지출은 2006~2008년 평균 2,422천 원으로 원자료 2,345천 원보다 77천 원 많다. 소비지출 10대 비목 중 교통통신이 16천 원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표 5-9〉 가계수지별 비교

(단위 : 천 원)

가계수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가계소득	2,767	2,850	2,896	2,968	2,942	3,083	3,488	3,833
경상소득	2,605	2,678	2,718	2,785	2,766	2,893	2,815	3,111
근로소득	1,714	1,770	1,807	1,868	1,844	1,963	1,883	2,065
사업소득	582	601	579	590	564	569	614	741
재산소득	62	57	70	63	69	64	17	18
이전소득	247	250	262	263	289	296	302	287
비경상소득	163	172	178	183	175	191	139	124
가계지출	2,269	2,331	2,365	2,424	2,400	2,510	2,386	2,645
소비지출	1,905	1,948	1,980	2,018	2,003	2,092	1,838	2,047
식료품	492	500	502	510	516	532	-	-
주거	72	69	74	74	77	78	-	-
광열수도	98	98	98	98	103	105	-	-
가구집기가사용품	78	81	85	90	85	90	-	-
피복및신발	99	102	102	104	100	105	-	-
보건의료	101	102	108	107	107	112	-	-
교육	205	209	214	218	223	229	-	-
교양오락	91	91	97	96	93	96	-	-
교통통신	336	350	345	357	342	365	-	-
기타소비지출	334	346	355	366	357	381	-	-
비소비지출	364	382	385	406	398	419	548	598

주) 1. 원자료의 소득 및 지출은 월별자료의 평균치로 분기별로 계산된 「가계동향조사」의 수치와 차이가 남
 2. 2009년 소비지출은 신분류의 적용으로 12대 품목으로 확대되어 다른 연도와 직접 비교가능하지 않아 하위 품목은 비교하지 않음

결합자료의 개인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2006~2009년 상반기 평균 각각 1,147천 원 및 349천 원으로 원자료 평균 1,812천 원 및 585천 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기타가구원의 소득이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아 2명 이상의 가구원 소득이 합산된 기타가구원의 소득이 결합자료 구축시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표 5-10〉 가계소득 및 지출 비교

(단위 : 천 원)

가계수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원자료	결합자료
근로소득	1,714	1,052	1,807	1,135	1,844	1,203	1,883	1,200
사업소득	582	353	579	354	564	345	614	346

주) 원자료의 소득 및 지출은 월별자료의 평균치로 분기별로 계산된 「가계동향조사」의 수치와 차이가 남

4. 빈곤을 비교

가계조사 원자료와 최종 연결자료의 빈곤율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지만 연결자료가 원자료보다 2인 이상 가구는 평균 0.3%p, 1인 이상 가구는 평균 0.8%p 낮은 수준이다.¹¹⁾ 이는 자료결합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 임시 및 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가구,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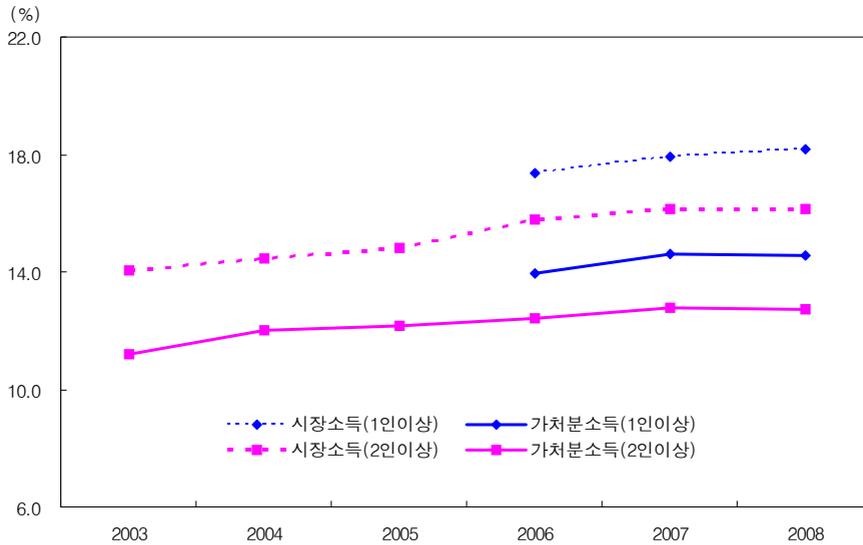
〈표 5-11〉 원자료와 연결자료의 빈곤율 추이 비교(2인 이상 가구)

연도	2인 이상 가구				1인 이상 가구			
	원자료		연결자료		원자료		연결자료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2003	17.4	14.7	17.0	14.4	-	-	-	-
2004	17.6	15.2	17.1	14.7	-	-	-	-
2005	18.6	15.8	18.0	15.3	-	-	-	-
2006	19.5	16.2	19.1	15.7	23.7	20.3	22.8	19.4
2007	18.9	15.6	19.2	15.8	24.1	20.7	23.2	19.7
2008	18.9	15.6	18.7	15.2	23.5	19.7	22.8	19.0

주) 가중치 미고려한 가구단위 빈곤율

개인단위 연결자료의 빈곤율도 가구단위 연결자료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지만 가구단위 연결자료의 빈곤율보다 낮다. 가구단위 빈곤율보다 가처분소득 기준 1인 이상 가구의 개인단위 빈곤율은 5.0%p, 2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은 3.0%p 낮다.

11) 가중치를 고려할 수 없는 연결자료와 가계조사 원자료의 비교를 위해 가계조사의 빈곤율은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통계청에의 공표 빈곤율과는 차이가 남



[그림 5-3] 개인단위 연결자료의 빈곤율 추이 비교

제4절 분석결과

1. 빈곤 및 근로빈곤 현황¹²⁾

가. 빈곤층의 구성 및 근로빈곤 추이

전체빈곤층 중 근로빈곤층은 근로무능력빈곤층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처분소득 기준 2006~2008년 평균 근로빈곤층은 7.8%로 근로무능력빈곤층 6.6%보다 1.2%p 많다. 근로무능력빈곤층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노인빈곤이 심각함을 반영하는데, 가처분소득 기준 2006~2008년 평균 65세 이상 근로무능력빈곤층은 79.0%로 근로무능력 빈곤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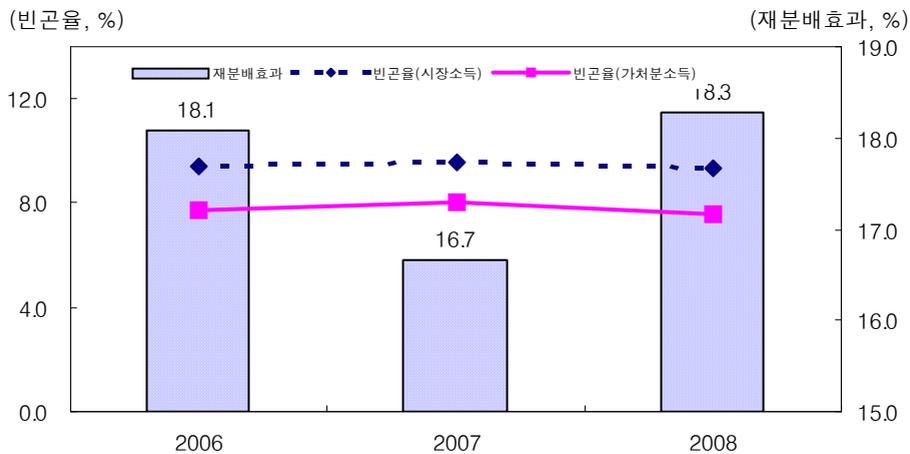
12) 1인 이상 전가구 기준

〈표 5-12〉 근로빈곤의 구성

(단위 : 명, %)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전체	13,242 (100.0)	12,422 (100.0)	11,981 (100.0)	13,242 (100.0)	12,422 (100.0)	11,981 (100.0)
비빈곤층	10,946 (82.7)	10,194 (82.1)	9,804 (81.8)	11,394 (86.0)	10,607 (85.4)	10,239 (85.5)
빈곤층	2,296 (17.3)	2,227 (17.9)	2,177 (18.2)	1,848 (14.0)	1,815 (14.6)	1,742 (14.5)
근로빈곤층	1,247 (9.4)	1,192 (9.6)	1,116 (9.3)	1,021 (7.7)	1,000 (8.0)	910 (7.6)
근로무능력빈곤층	1,049 (7.9)	1,035 (8.3)	1,061 (8.9)	827 (6.2)	815 (6.6)	831 (6.9)
65세 이상	822 (6.2)	822 (6.6)	833 (7.0)	652 (4.9)	646 (5.2)	656 (5.5)
심산장애자	9 (0.1)	8 (0.1)	9 (0.1)	7 (0.0)	8 (0.1)	6 (0.1)
재학	144 (1.1)	145 (1.2)	162 (1.4)	116 (0.9)	119 (1.0)	129 (1.1)
군입대대기	73 (0.6)	60 (0.5)	57 (0.5)	52 (0.4)	43 (0.3)	40 (0.3)

근로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처분 소득 기준 근로빈곤율은 2006년 7.7%에서 2007년 8.0%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7.6%로 감소하였다. 정부의 조세, 공적이전 등 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2006년 18.1%에서 2007년 16.0%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18.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5-4] 근로빈곤 및 재분배 효과 추이



나. 근로빈곤층의 구성

근로빈곤층에서 빈곤가구에 속한 개인 중 취업자로 정의되는 취업빈곤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과 낮은 일자리의 질이 빈곤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취업빈곤층의 비중은 2006~2008년 기간 평균 54.6%이고 비경활빈곤층은 42.8%, 실업빈곤층은 2.7%를 차지한다.

빈곤층 중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을 살펴보면 임시 및 일용직과 자영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고용의 불안정 및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인해 빈곤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은 2006~2008년 기간 평균 27.6%이고 자영업자의 비중은 16.3%, 상용 및 고용주의 비중은 7.2%이다.

전반적인 빈곤층 감소에 따라 2008년의 취업빈곤층과 비경활빈곤층은 감소하였으나 실업빈곤층은 증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층 감소 정책이 요구된다. 2008년 취업빈곤층 및 비경활빈곤층은 각각 54.7%, 42.5%로 2007년 보다 각각 0.3%p, 0.2%p 감소하였고, 2008년 실업빈곤층은 2.8%로 전년에 비해 0.5%p 증가하였다.

〈표 5-13〉 근로빈곤층의 구성

	(단위 : %)		
	2006	2007	2008
전체	100.0	100.0	100.0
취업빈곤층	54.0	55.0	54.7
상용직	5.0	4.7	5.1
임시직	13.7	14.8	14.1
일용직	14.1	13.2	13.1
고용주	2.2	2.7	1.9
자영자	15.7	16.0	17.3
무급가족종사자	3.2	3.7	3.3
실업빈곤층	3.0	2.3	2.8
비경활빈곤층	43.1	42.7	42.5

다. 근로빈곤층의 특징

2008년 기준 개인 특성별 근로빈곤층의 빈곤 발생률을 살펴보면,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 저학력자일수록 빈곤 및 근로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 여성의 빈곤율은 16.5%로

남자의 12.4%보다 4.1%p 높고 여성 근로빈곤자는 8.6%로 여성 근로무능력자 7.9%보다 높다. 60세 이상 고연령자의 근로빈곤율은 10.2%로 높으며 또한 근로무능력자는 28.7%를 차지한다, 중학교 이하 저학력자의 근로빈곤율은 20.1%이고 근로무능력자도 33.2%이다. 이는 저학력자의 취업빈곤율이 높아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학력은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한다.

2008년 기준 근로빈곤층의 개인 특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 중 여성의 비중은 60.1%이며 특히 비경활빈곤층에서는 73.7%나 차지한다. 60세 이상은 근로빈곤층 중 26.2%를 차지하고 또한 근로무능력빈곤층에서는 80.5%나 차지한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자는 근로빈곤층 중 46.1%나 차지하고 취업빈곤층에서는 48.6%로 저학력자의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근로빈곤층의 특성(2008년)

(단위 : %)

	발생비						구성비					
	비 빈 곤 층	근로빈곤층			근로 무능 력빈 곤층	비 빈 곤 층	근로빈곤층			근로 무능력 빈곤층		
		취업	실업	비 경 활			취업	실업	비 경 활			
합계	85.5	7.6	4.2	0.2	3.2	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												
남자	87.6	6.5	4.3	0.3	1.8	5.9	48.2	39.9	48.9	72.4	26.3	39.9
여자	83.5	8.6	4.0	0.1	4.5	7.9	51.8	60.1	51.1	27.6	73.7	60.1
연령												
15~20세	89.0	1.2	0.5	0.1	0.7	9.8	9.6	1.5	1.0	3.9	2.0	12.9
20~29세	91.2	6.9	2.4	0.7	3.8	2.0	11.1	9.4	6.0	32.6	12.3	2.9
30~39세	93.6	6.1	3.0	0.3	2.8	0.3	24.2	17.6	15.8	30.6	19.1	1.0
40~49세	92.3	7.3	4.9	0.1	2.3	0.3	25.3	22.7	27.4	15.8	17.1	1.1
50~59세	88.2	11.2	5.3	0.1	5.7	0.7	15.9	22.6	19.6	8.9	27.3	1.5
60세 이상	61.1	10.2	6.5	0.1	3.7	28.7	13.9	26.2	30.2	8.2	22.2	80.5

〈표 5-14〉 근로빈곤층의 특성(2008년) 계속

(단위 : %)

	발생비						구성비					
	비 빈 곤 층	근로빈곤층				근로 무능 력빈 곤층	비 빈 곤 층	근로빈곤층				근로 무능력 빈곤층
		취업	실업	비 경 활				취업	실업	비 경 활		
교육정도												
초등학교 이하	62.4	12.1	7.4	0.1	4.5	25.5	13.0	28.4	32.0	10.2	25.0	65.7
중학교	84.4	8.0	4.1	0.1	3.8	7.5	16.6	17.7	16.6	9.2	19.7	18.2
고등학교	90.0	7.8	4.3	0.2	3.3	2.3	41.0	39.7	40.1	39.5	39.3	12.7
전문대학교	94.5	5.1	2.4	0.3	2.4	0.5	9.7	5.8	5.1	12.2	6.4	0.6
대학교	94.9	3.9	1.6	0.4	1.9	1.2	17.1	7.9	6.0	28.0	8.9	2.7
대학원	98.1	1.5	0.5	0.1	1.0	0.4	2.6	0.5	0.3	1.0	0.7	0.1

2. 빈곤의 결정 요인

빈곤 및 근로빈곤을 결정짓는 요인을 경제모형인 로짓모형(discrete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은 다음과 같다.

$$\lambda_i = \frac{\exp(y_i)}{1 + \exp(y_i)}$$

$$y_i = \sum_{k=1}^n \beta_k x_{ik}$$

단, y_i 는 이항종속 변수, x_{ik} 는 i 의 개인 및 가구 특성 설명변수

빈곤모형의 경우 종속변수는 빈곤인 경우 1, 비빈곤인 경우 0의 값을 가지고 근로빈곤 모형의 경우 종속변수는 근로능력자 중 빈곤인 개인(근로빈곤)의 경우 1, 근로능력자 중 비빈곤인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빈곤 및 근로빈곤 모형의 설명변수로는 개인의 특성 변수인 성,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및 종사상 지위와 가구특성변수인 가구유형, 가구취업자수 및 가구원수를 사용하였다.

빈곤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특성 중 연령이 60세 이상, 저학력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비임금근로자(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 가구 내 취업자 및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

근로빈곤 모형의 결과도 빈곤모형과 유사하게, 개인의 특성 중 저학력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가구 특성 중 노인가구주 가구, 가구 내 취업자 및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

〈표 5-15〉 빈곤 및 취업빈곤 결정 모형(2008년)

특 성	빈곤모형	근로빈곤모형
[개인 특성]		
성(남자) 여자	-0.242 (0.020)***	-0.205 (0.022)***
나이(30~59세) 15~29세	-0.107 (0.040)***	0.069 (0.043)
60세 이상	0.052 (0.027)**	
교육정도 중학교졸 이하	0.486 (0.022)***	0.553 (0.025)***
(고등학교졸) 전문대졸	-0.564 (0.044)***	-0.668 (0.045)***
대졸 이상	-1.042 (0.034)***	-1.152 (0.038)***
배우자유무 미혼	0.106 (0.037)***	0.360 (0.039)***
없음(사별, 이혼)	0.301 (0.025)***	0.596 (0.032)***
종사상지위 미취업자	0.266 (0.031)***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0.766 (0.032)***	
비임금근로자	0.828 (0.033)***	
[가구 특성]		
가구유형 노인가구주가구	0.644 (0.031)***	1.520 (0.056)***
모자가구	-0.609 (0.054)***	-0.410 (0.065)***
맞벌이가구	-0.628 (0.046)***	-0.408 (0.052)***
가구취업자수	-1.595 (0.020)***	-1.640 (0.022)***
가구원수	-0.147 (0.008)***	-0.040 (0.008)***
-2Log L	83,508.7	56,216.8
AIC	83,540.7	56,240.8
표본수	143,769	111,709

주) 1.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편차

3. 근로빈곤의 동태적 현황

빈곤주기, 빈곤탈출 및 진입 결정모형 분석의 경우, 복수빈곤주기(multiple poverty spell) 접근방법 및 좌우측 절단(left- and right-censored) 자료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지속기간 및 빈곤탈출(진입) 분석 자료의 경우, 개인(또는 가구)는 여러 번의



빈곤주기(poverty spell)¹³⁾를 경험할 수 있어 한 개인(또는 가구)가 경험한 빈곤주기를 모두 다 포함하여 각각 개별적인 빈곤주기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주기의 경우 빈곤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좌측절단(left-censored) 및 우측절단(right-censored)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빈곤의 시작시점을 알 수 없는 좌측절단자료의 경우 분석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좌측절단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Stevens, 1999) 등도 제시되었고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좌측절단자료를 제외할 경우 표본유실이 많아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절단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가. 빈곤탈출 및 진입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빈곤탈출률은 낮아지고 빈곤진입률은 높아져 빈곤층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로 전기간(2006년→2007년)에 비해 탈출률은 낮아지고 진입률은 높아졌다.

〈표 5-16〉 빈곤 탈출 이행행렬

2006년 → 2007년		2008년 → 2009년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31.8	4.5	20.9	5.8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근로무능력층보다는 높아 근로능력여부가 빈곤탈출의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다. 2008년 근로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8.3%이고 근로무능력층이 탈출할 확률은 13.0%이다. 취업빈곤자의 64.6%가 취업인 상태에서도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여 지속적인 빈곤상태에 처해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6~2007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탈출률은 OECD 17개국 평균 39.2%보다 낮고 빈곤진입률은 OECD 17개국 평균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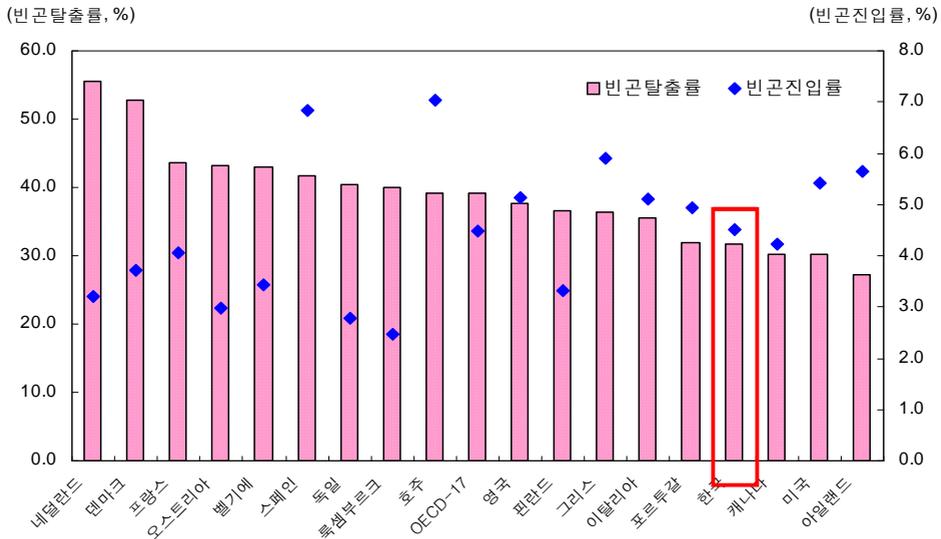
13) 가구가 빈곤을 경험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

<표 5-17> 빈곤 및 근로빈곤 탈출 이행행렬(2008~2009년)

(단위: 명, %)

2008년 \ 2009년		비빈곤층	빈곤층					총계 (명)	
			근로능력			근로 무능력층			
			합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비빈곤층		94.2 (5,061)	3.6 (195)	2.4 (130)	0.1 (8)	1.1 (57)	2.1 (114)	100.0 (5,370)	
빈곤층	근로 빈곤층	취업자	28.3 (84)	69.4 (206)	64.6 (192)	0.3 (1)	4.4 (13)	2.4 (7)	100.0 (297)
		실업자	30.0 (3)	70.0 (7)	20.0 (2)	20.0 (2)	30.0 (3)	0.0 (0)	100.0 (10)
		비경활	28.2 (60)	66.7 (142)	4.7 (10)	1.4 (3)	60.6 (129)	5.2 (11)	100.0 (213)
	근로무능력층		13.0 (64)	5.7 (28)	4.3 (21)	0.2 (1)	1.2 (6)	81.3 (399)	100.0 (491)
	총계(명)		5,272	355	355	15	208	531	6,381

주) 1.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처분소득 기준
2. 괄호 안은 가구수



주) OECD 국가별로 2000년 초반의 각기 상이한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유럽국가는 1999~2001년 자료, 캐나다 및 호주는 2002~2004년, 미국은 2001~2003년, 일본은 2005~2007년 자료를 사용하였음
출처)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그림 5-5] OECD 17개국의 빈곤 탈출 및 진입률

나. 가구 및 개인 특성별 빈곤 이행률

가구 및 개인 특성별 빈곤이행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인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60세 이상 고연령 가구주 가구, 저학력 가구주 가구, 1인가구일수록 빈곤탈출률이 낮고 빈곤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탈출률은 8.8%로 매우 낮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빈곤탈출률이 37.5%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탈출률은 13.2%이고 빈곤진입률은 14.3%이다. 1인 및 2인가구의 빈곤탈출률은 각각 12.2%, 10.4%이고 빈곤진입률은 1인가구가 12.1%로 가장 높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가구 내 취업자가 많을수록 빈곤탈출률이 높고 빈곤진입률이 낮아 일자리의 질과 취업여부가 빈곤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 직업이 노동 및 무직인 가구주 가구, 1인가구, 가구 취업자수가 낮을수록 빈곤탈출률이 낮고 빈곤진입률이 높는데, 가구 내 취업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 빈곤탈출률은 13.6%이고 빈곤진입률은 20.7%이다.

한편, 노인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60세 이상 고연령 가구주 가구, 저학력 가구주 가구 및 1인가구는 빈곤지속률이 높고 비빈곤지속률은 다른 가구보다 낮아 장기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빈곤탈출 및 빈곤진입률도 가구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여성, 60세 이상 고연령, 저학력일수록 빈곤탈출률이 낮고 빈곤진입률이 높다. 여성의 경우 여전히 남성보다 장기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는데 빈곤탈출률은 19.3%로 남성보다 낮고, 빈곤진입률은 7.4%로 남성보다 높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빈곤탈출률은 11.2%이고 빈곤진입률은 14.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개인은 빈곤탈출률이 40.0%로 매우 높고 빈곤진입률은 0.0%이다.

개인의 종사장 지위 중 상대적으로 일용근로자와 자영자의 빈곤탈출률이 낮고 빈곤진입률이 높아 고용의 불안정과 영세자영자의 열악한 현실이 빈곤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영한다. 일용근로자의 빈곤탈출률은 17.3%, 자영자는 26.9%를 나타내고 빈곤진입률은 각각 8.6%, 6.1%를 나타냈다. 또한 가구주 직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빈곤탈출률이 높고 빈곤진입률이 낮아 일자리의 질과 취업여부가 빈곤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 직업이 노동 및 무직인 가구주 가구, 1인가구, 가구 취업자수가 적을수록 빈곤탈출률이 낮고 빈곤진입률이 높다.

배우자 유무도 빈곤진입 및 탈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개인보다는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개인의 빈곤탈출률이 낮고 빈곤진입률이 높다. 즉, 배우자가 없는 개인의 빈곤탈출률은 12.7%로 가장 낮고 빈곤진입률은 1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가구 및 개인특성별 빈곤 이행률(2008~2009년)

(단위 : %)

특성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지속	비빈곤지속
가구	가구유형	노인가구주가구	8.8	23.6	91.2	76.4
		모자가구	12.5	4.6	87.5	95.4
		맞벌이가구	37.5	2.1	62.5	97.9
		일반가구	28.0	6.3	72.0	93.7
	가구주 성	남자	25.6	4.1	74.4	95.9
		여자	13.2	14.3	86.8	85.7
	가구주 연령	15~29세	55.0	6.7	45.0	93.3
		30~44세	41.6	2.8	58.4	97.2
		45~59세	26.4	5.3	73.6	94.7
		60세 이상	11.5	13.7	88.5	86.3
	가구주 교육정도	중학교졸 이하	13.3	13.7	86.7	86.3
		고등학교졸	35.4	4.3	64.6	95.7
		전문대졸	23.5	2.8	76.5	97.2
		대졸 이상	35.7	0.0	64.3	100.0
	가구주 직업	관리및전문직	37.5	2.7	62.5	97.3
		사무및판매직	24.8	4.3	75.2	95.7
		노동직	28.1	5.4	71.9	94.6
		무직 등	15.4	17.0	84.6	83.0
	가구원수	1명	12.2	12.1	87.8	87.9
		2명	10.4	10.0	89.6	90.0
3명		27.5	5.6	72.5	94.4	
4명		40.0	3.9	60.0	96.1	
5명 이상		50.7	2.6	49.3	97.4	
가구취업자수	0명	13.6	20.7	86.4	79.3	
	1명	25.6	6.4	74.4	93.6	
	2명	40.0	3.3	60.0	96.7	
	3명 이상	0.0	1.3	100.0	98.7	
개인	성	남자	23.1	4.3	76.9	95.7
		여자	19.3	7.4	80.7	92.6
	나이	15~29세	37.5	4.4	62.5	95.6
		30~44세	39.9	2.8	60.1	97.2
		45~59세	25.9	5.2	74.1	94.8
		60세 이상	11.2	14.1	88.8	85.9
	교육정도	중학교졸 이하	14.6	10.1	85.4	89.9
		고등학교졸	32.8	4.3	67.2	95.7
		전문대졸	31.0	2.8	69.0	97.2
		대졸 이상	40.0	0.0	60.0	100.0

특성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지속	비빈곤지속
개인	종사상 지위	실업자	30.0	6.5	70.0	93.5
		상용근로자	42.3	1.8	57.7	98.2
		임시근로자	32.9	4.5	67.1	95.5
		일용근로자	17.3	8.6	82.7	91.4
		고용주	41.7	3.4	58.3	96.6
		자영자	26.9	6.1	73.1	93.9
		무급가족종사자	33.3	7.0	66.7	93.0
		직업	관리및전문직	45.0	2.0	55.0
	사무및판매직	30.3	4.0	69.7	96.0	
	노동직	25.9	5.1	74.1	94.9	
무직 등	17.1	8.3	82.9	91.7		
배우자 유무	미혼	27.0	5.4	73.0	94.6	
	있음	23.9	4.7	76.1	95.3	
	없음(사별, 이혼)	12.7	14.7	87.3	85.3	

다.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상태 간 이동

2008~2009년 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상태 간 이동을 살펴보면, 근로빈곤층 취업자의 실직확률¹⁴⁾은 전체 근로빈곤층 대비 5.0%로 비빈곤층 2.3%보다 높다. 특히 근로빈곤층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할 확률이 4.8%로 비빈곤층의 2.0%보다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이탈률이 높다. 비빈곤층의 취업자는 57.4%가 여전히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로빈곤층은 52.1%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빈곤층의 고용불안이 높음을 나타낸다. 2006~2007년과 2008~2009년 두 기간을 비교해보면, 근로빈곤층의 실직확률 및 노동시장 이탈률은 감소하였다.

〈표 5-19〉 경제활동상태 이행행렬

(단위: %)

t기	t+1	2006~2007년				2008~2009년			
		취업	실업	비경활	합계	취업	실업	비경활	합계
비빈곤층	취업	62.8	0.2	2.1	100.0	57.4	0.3	2.0	100.0
	실업	0.4	0.0	0.2		0.3	0.0	0.2	
	비경활	3.2	0.4	30.7		2.3	0.5	36.8	
근로빈곤층	취업	48.7	0.6	5.5	100.0	52.1	0.2	4.8	100.0
	실업	0.8	1.2	1.2		0.8	0.6	0.6	
	비경활	7.8	0.4	33.9		4.0	1.2	35.8	
근로무능력빈곤층		5.0	-	95.0	100.0	5.5	0.2	94.3	100.0

14) 취업에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확률

라. 빈곤경험과 지속기간

'03~'07년 동안 3년 이상의 빈곤을 경험하는 개인의 비중은 42.6%로 한 번 빈곤을 경험한 개인은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것을 나타냈다.

〈표 5-20〉 빈곤 경험기간

(단위: %)

패널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2003~2007년(5년)	38.5	18.9	11.2	8.9	22.5

주) 2003~2007년간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처분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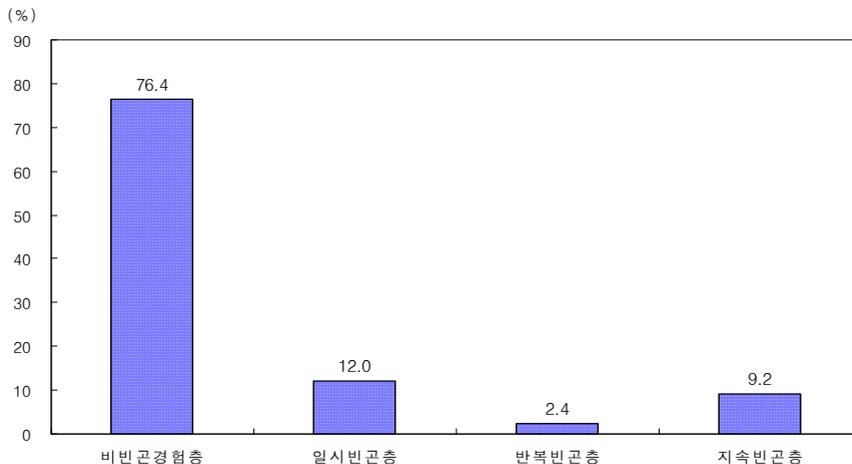
개인을 빈곤경험유무 및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빈곤경험층, 일시빈곤층, 반복빈곤층 및 지속빈곤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속빈곤층이 9.2%이고 반복빈곤층은 2.4%를 차지하여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비빈곤층 : 5년 동안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개인

일시빈곤층 : 빈곤기간이 2년 이하, 한 번의 빈곤주기

반복빈곤층 : 빈곤기간이 2년 이하, 두 번의 빈곤주기

지속빈곤층 : 빈곤기간이 연속하여 3년 이상, 빈곤주기가 2년 이상 또는 빈곤 경험 기간이 4년 이상



[그림 5-6] 빈곤 유형별 비중

마. 빈곤탈출 및 진입의 결정요인 분석

빈곤의 탈출 및 진입률은 이산변수인 빈곤기간¹⁵⁾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산시간 해자드모형(discrete time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빈곤탈출 및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t 시점 전까지 (비)빈곤인 상태로 있다 t 시점에 빈곤을 탈출(빈곤에 진입)할 확률을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설명변수(time varying covariates)와 (비)빈곤 기간효과를 포함한 로짓함수 형태를 가정하여 파악하였다. 경기순환적 요인과 특정연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연도 더미, (비)빈곤경험과 (비)빈곤기간, 가구 및 개인 특성 정적변수와 두 기간 간 가구특성의 변동을 나타내는 동적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에서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lambda_i = \frac{\exp(y_i)}{1 + \exp(y_i)}$$

$$y_i = d_{id} + \beta_{1j}x_{ij} + \beta_{2k}\Delta z_{ik}$$

단, y_i 는 이항종속 변수, x_{ij} 는 i 의 개인 및 가구 특성 설명변수, Δz_{ik} 는 동적 가구특성

빈곤탈출(진입) 모형의 종속변수는 빈곤탈출(진입)인 경우 1, 빈곤(비빈곤)인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설명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종사상 지위의 개인의 특성과 가구유형, 가구취업자수 및 가구원수의 가구특성 그리고 가구 내 취업자 및 가구원수의 변화를 가구특성의 변화 변수로 사용하였다.

빈곤탈출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빈곤경험을 많이 할수록, 빈곤기간이 길수록 빈곤탈출이 어려우며, 29세 미만의 경우 탈출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인 경우는 탈출할 확률이 높으며, 가구 내 취업자가 많을수록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가구 내 취업자의 증가는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곤진입의 경우도 비빈곤경험을 많이 할수록, 비빈곤기간이 길수록 빈곤진입이 어려우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진입확률이 낮고 상용근로자에 비해 미취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은 빈곤진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내 취업자가 많을수록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낮으며 가구 내 취업자의 감소는 빈곤에 진입할 확률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15) 빈곤기간이 “년”으로 측정되는 이산변수

〈표 5-21〉 빈곤탈출 및 진입 결정 모형(2003~2007년)

특성	빈곤탈출		빈곤진입		
	추정모수	(표준편차)	추정모수	(표준편차)	
[빈곤 경험]					
(비)빈곤경험	-4.657	(1.653)***	-5.457	(0.804)***	
(비)빈곤기간	-3.966	(0.686)***	-2.795	(0.241)***	
[개인 특성]					
성(남자)	여자	-0.042	(0.648)	0.392	(0.434)
나이(30~59세)	15~29세	-6.128	(2.053)**	-2.420	(1.797)
	60세 이상	1.567	(0.980)	-0.355	(0.567)
교육정도	중학교졸 이하	-0.785	(0.751)	0.197	(0.452)
(고등학교졸)	전문대졸	-1.079	(8.404)	1.534	(0.747)**
	대졸 이상	-0.746	(1.074)	-1.663	(0.837)**
배우자유무	미혼	6.500	(2.024)***	0.992	(1.687)
	없음(사별, 이혼)	-0.515	(0.935)	-1.347	(0.639)**
종사상 지위	미취업자	4.624	(1.863)**	3.058	(1.002)***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2.622	(1.899)	3.782	(1.009)***
	비임금근로자	3.337	(1.818)*	3.612	(0.990)***
[가구 특성]					
가구유형	노인가구주가구	-0.986	(0.996)	0.888	(0.700)
	모자가구	5.982	(2.284)***	-0.279	(1.012)
	맞벌이가구	3.035	(1.915)	-0.481	(0.603)
가구취업자수		1.793	(0.865)**	-0.861	(0.387)**
가구원수		0.419	(0.362)	0.396	(0.213)*
[가구특성의 변화]					
취업자수	감소	-4.167	(1.459)***	2.177	(0.542)***
	증가	0.617	(0.865)	-0.925	(0.653)
가구원수	감소	-0.507	(1.258)	-0.994	(0.639)
	증가	-1.419	(1.067)	0.827	(0.696)
-2Log L		93.696		286.124	
AIC		145.696		236.124	
표본수		348		2,560	

주) 1.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
 2. 연도더미는 표시하지 않았음

제5절 결 론

전체빈곤층 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빈곤에 처해있는 근로빈곤층은 근로무능력빈곤층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정부의 노동기회 제공, 질 좋은 일자리 제공, 근로장려 세제 정책 확대 등 적극적인 노동 및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로빈곤층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교육·주거지원 확충, 자활지원정책 내실화, 창업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실시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 중에서 취업빈곤층의 비중이 높아 내실있는 직업교육을 통해 개인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분석결과, 2008년 근로빈곤율은 감소하였지만 실업빈곤층은 증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층 감소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즉,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보험의 정부부담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빈곤층 중에서 임시 및 일용직과 자영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고용의 불안정 및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이 심각함을 반영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법¹⁶⁾ 보완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자금 확대 지원과 영세자영업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여성, 60세 이상, 저학력자일수록 근로빈곤뿐만 아니라 근로무능력 빈곤 상태에 처할 확률도 높아 이들에 대한 공적 부조정책과 함께 일자리 제공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유아돌봄, 노인간병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 정책은 3년 이상 빈곤을 경험하는 지속빈곤층의 비중이 높고 빈곤경험이 많을수록 빈곤진입 확률이 높으므로 단기적인 빈곤지원 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빈곤관련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근로빈곤층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부처별로 중복 및 협조가 필요한 정책들을 조정 및 통합관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행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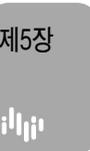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확한 빈곤현황, 장기적인 동태적 빈곤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용과 소득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패널조사의 실시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분석에 사용된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합자료의 높은 표본 탈락률, 편이 등 자료의 한계로 우리나라 전체의 빈곤 및 동태적 빈곤 현황을 나타내지는

16) 정확한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07년 7월 1일 시행

않아 새로운 패널조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5-22〉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주요 추진 정책

부처	2009년 주요 추진 정책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근로자 실업 최소화 ▪ 구조조정 위험 근로자 대상 진직지원 활성화 ▪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재취업 유도 ▪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 청년층 취업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 및 뉴스타트프로젝트, 글로벌리더양성 ▪ 실업급여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 체불·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여성·고령자·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 비정규직법 보완 ▪ 퇴직연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식품 지원 확대 ▪ 한시보호제도 ▪ 자산담보부 생활보장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대책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다각적 확대 ▪ 노인생활 및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특화건강검진제도 도입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 저소득 무직가구 0%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빈곤무직가구의 가구원 1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저소득가구에 microcredit 지원 확대



참고문헌

- 이병희 외(2006), “고용과 빈곤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_____ (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외(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대명 및 최승아(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 Strengmann Kuhn(2002), Working Poor in Europe: A Partial Basis Income for Worker?, Working
Paper in BIEN Congress

<부 록>**<부표 5-1> 빈곤 및 근로빈곤 탈출 이행행렬(2006~2007년)**

(단위: 명, %)

2006년 \ 2007년		비빈곤층	빈곤층				총계		
			근로빈곤층			근로 무능력층			
			합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비빈곤층		95.6 (5,717)	4.4 (266)	2.1 (128)	0.1 (4)	1.2 (69)	1.1 (65)	100.0 (5,983)	
빈곤층	근로 빈곤층	취업자	34.5 (97)	65.5 (184)	57.3 (161)	1.1 (3)	3.6 (10)	3.6 (10)	100.0 (281)
		실업자	18.8 (3)	81.3 (13)	12.5 (2)	31.3 (5)	25.0 (4)	12.5 (2)	100.0 (16)
		비경활	26.4 (57)	73.6 (159)	8.8 (19)	0.9 (2)	57.4 (124)	6.5 (14)	100.0 (216)
	근로무능력층		13.4 (54)	86.6 (350)	3.7 (15)	0.0 (0)	1.2 (5)	81.7 (330)	100.0 (404)
총계		5,928	325	325	14	212	421	6,900	

주) 1.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처분소득 기준
 2. 괄호 안은 가구수



〈부표 5-2〉 가구 및 개인특성별 빈곤 이행률(2006~2007년)

(단위 : %)

특성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지속	비빈곤지속
가구	가구유형	노인가구주가구	6.8	17.9	93.2	82.1
		모자가구	20.0	9.9	80.0	90.1
		맞벌이가구	36.8	1.6	63.2	98.4
		일반가구	30.4	5.2	69.6	94.8
	가구주 성	남자	24.9	3.4	75.1	96.6
		여자	20.2	10.0	79.8	90.0
	가구주 연령	15~29세	20.0	3.2	80.0	96.8
		30~44세	39.4	3.5	60.6	96.5
		45~59세	32.2	3.3	67.8	96.7
		60세 이상	13.7	12.8	86.3	87.2
	가구주 교육정도	중학교졸 이하	17.7	10.5	82.3	89.5
		고등학교졸	31.6	3.3	68.4	96.7
		전문대졸	50.0	3.2	50.0	96.8
		대졸이상	30.2	1.5	69.8	98.5
	가구주 직업	관리및전문직	27.6	1.3	72.4	98.7
		사무및판매직	32.9	4.1	67.1	95.9
		노동직	31.2	5.0	68.8	95.0
		무직 등	15.7	10.6	84.3	89.4
	가구원수	1명	11.2	8.9	88.8	91.1
		2명	14.6	7.4	85.4	92.6
		3명	34.8	3.9	65.2	96.1
		4명	37.9	3.1	62.1	96.9
		5명 이상	40.6	3.9	59.4	96.1
	가구취업자수	무직	13.5	12.6	86.5	87.4
		1명	28.3	5.8	71.7	94.2
		2명	50.0	2.6	50.0	97.4
		3명 이상	-	2.3	-	97.7
	개인	성	남자	24.5	3.9	75.5
여자			22.0	4.9	78.0	95.1

〈부표 5-2〉 가구 및 개인특성별 빈곤 이행률(2006~2007년) (계속)

(단위 : %)

특성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지속	비빈곤지속
나이	15~29세	38.6	3.6	61.4	96.4
	30~44세	41.0	3.5	59.0	96.5
	45~59세	28.6	3.4	71.4	96.6
	60세 이상	13.2	11.1	86.8	88.9
교육정도	중학교졸 이하	17.5	7.4	82.5	92.6
	고등학교졸	35.2	3.7	64.8	96.3
	전문대졸	44.4	3.4	55.6	96.6
	대졸 이상	25.0	1.6	75.0	98.4
종사상 지위	실업자	18.8	2.6	81.3	97.4
	상용근로자	50.0	0.8	50.0	99.2
	임시근로자	35.8	5.3	64.2	94.7
	일용근로자	28.8	8.7	71.3	91.3
	고용주	50.0	2.2	50.0	97.8
	자영자	30.4	5.8	69.6	94.2
	무급가족종사자	38.5	4.3	61.5	95.7
직업	관리및전문직	31.6	1.4	68.4	98.6
	사무및판매직	32.3	3.8	67.7	96.2
	노동직	32.8	4.7	67.2	95.3
	무직 등	17.9	5.9	82.1	94.1
배우자유무	미혼	32.2	4.5	67.8	95.5
	있음	25.2	3.8	74.8	96.2
	없음(사별, 이혼)	14.9	9.7	85.1	90.3

